

KIT, 선임연구부장에 하창수 박사

KIT(안전성평가연구소)는 선임연구부장으로 하창수 박사를 선임했다.

KIT는 의약이나 농약,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화학물질 등과 생물 산업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1988년 국내 최초로 의약품 GLP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공인 수탁연구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어 환경부(1998), 농림부(2002년)의 GLP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 이어 일본 농림수산성(1990년)의 GLP 인증을 받았다.

2000년에는 OECD 상호사찰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005년에는 미국 FDA의 사찰을 성공적으로 수검했다.

KIT는 국제적 인지도와 능력 제고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기관에 의뢰하던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전임상(독성)시험 의뢰가 급증해 2002년 20억원에 달하던 수탁시험료가 2007년에는 170억원으로 8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2005년부터는 대전 연구소에 이어 정읍 분소 설립중이다.

□승진 ◇KIT ▲부장 선임연구 하창수(사진), 연구개발 윤석주 ▲팀장 사업개발부 이현주(국내), 사업개발부 박미선(해외), 도성병리부 임상병리

이현숙, 혁신정책홍보부 혁신정책 이현숙, 경영기획부 기획예산 류지호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1/06>